

하나님의 마음과 사이클이 맞아야 은혜를 받는다

우리들은 야곱의 단지파 자손이라고 찬송을 불렀죠? 우리들은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인 '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인 것이올시다. 왜 '단'이라는 단지파의 자손들이 이 한국 땅까지 왔을까?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복지를 찾아서 광야로 갔던 것이올시다.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대로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가 기도를 하여 이슬과 같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했던 것이올시다.

이슬같은 만나를 내려 먹게 한 모세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 나라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전부 이끌고 나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게 된 것이올시다. 모세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갔는데 도중에 정착지가 광야라고 하는 모래밭이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대로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머무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할 것 없이 '애굽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을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니 거기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양식을 받도록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먹여 살려야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이올시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늘에서 이슬과 같은 만나가 쏟아져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태기로 퍼다가 그걸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과 같은 만나를 40년간 먹고 살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복

지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그대로 쳐들어 가서 그 사람들의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빼앗아 그 지역을 이스라엘 나라로 삼게 된 거예요. 전부 장대 같이 키가 크고 기운이 센 사람들을 상대로전쟁을 하여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단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의 '소라'라고 하는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었던 고로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왜 '단'으로 했느냐 하면 조상의 이름이 '단'인 고로 우리 조상의 이름이 '단'이죠? 우리 후손들이 '단'이라고 조상의 이름을 부르기가 죄송하니까 임금 군(君)자를 붙여서 단군이라고 하고서 해산단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역사예요.

그런데 옛날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그대로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그대로 말을 꾸며내기를 환웅이라는 조상이 꿈과 같이 살아가고 낳은 아들이 단군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역사책에 그대로 써어 있는 거죠? 꿈의 자식이 바로 단군 할아버지요.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전부 꿈의 자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꿈 닮았어요? 꿈 안 닮았죠? 잘못된 이야기예요.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 단이라고 하는 조상이 이제그대로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 지금부터 3천 약 2백여년 전서부터 그 소라 땅을 출발해가지고 육지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 그대로 또 육지를 걷고 걸어서 몽고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알타이산맥 근방에 몽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몽고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자리를 잡고 고조선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왓장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기왓장이죠? 그 기왓장이 동그란데 기왓장에 글자가 바로 고대 히브리어가 되는 이스라엘 말이 써어 있죠? '도착했다'하는 글



구세주 조희성님

이 써어 있는가 하면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늘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우리 단지파 조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입증되는 거죠? 하늘나라를 회복해서 들어간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산 걸 보아 분명히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 나라 에덴동산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걸 알 수 있죠? 또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 기왓장 속에 고대 히브리어가 써어 있는 걸 보아 분명히 그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스라엘 말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 틀림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는 우리 자체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것이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으나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되는 마귀의 영에게 침투를 받아 선악과가 되는 마귀가 주인공인 나라는 의식이 되고 양심의 영이 주인공으로 있다가 밀려나가서 마귀 종노릇을 하고 있죠? 이 마귀가 하나님을 밀쳐

럽 타고 다니면서 부러먹고 있죠? 사람들의 본체는 하나님이었었는데 마귀가 점령을 하여 마귀가 주인공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처지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거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영인 마귀가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을 죽이는 고로 사람이 죽는 고로 이제그대로 사람의 영을 죽이는 거지,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예요. 사람의 목숨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 틀림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는 우리 자체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사람 사람마다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신이 각 사람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죠? 마귀가 쫓겨 놓은 거야. 마귀가. 마귀가 바로 주인이 되어가지고 너와 나를 만들고 완전히 쫓겨서 남남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을 분열의 영이라고 그래요. 분열의 영이

라는 것은 하나를 둘로 쪼개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쪼개는 걸! 한 사람을 쪼개서 이제그대로 60억까지 됐죠? 어린 아이를 낳는 역사가 마귀 역사예요. 마귀나 자식을 낳지, 하나님은 자식을 안 낳아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의 분신이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한 몸이었던 거죠? 한 몸을 쪼개고 쪼개서 여러 몸을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서로 전쟁도 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기도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이 사람이 전쟁을 못 일어나게 한다고 그랬죠?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할 정도는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는 존재가 아니면 전쟁을 못 일어나게 못해요. 이 치적으로 그렇죠? 사람 속에 있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 마귀를 죽여 없애버리는 능력이 없이는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한 태풍을 못 오게 한다고 그랬죠? 태풍을 못 오게 하려면 이제그대로 태풍도 신이라고 그랬죠? 바람도 신이라고 그랬죠? 그 신을 그대로 명령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아니면 태풍을 막을 수가 있을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간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바람도 이길 수 있고 사람 속에 있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고로 이간자, 승리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공산주의도 마귀의 영이예요. 사람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고로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거지, 마귀가 안 들어가면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지구 땅 위에 약 삼분지 이가 공산주의자였다고 그랬죠? 그 마귀를 모조리 죽여 없애야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걸 보아 사람을 하나님 만들 수 있다는 증거죠?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이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되고 틀림없이 영생을 얻고야 말죠? 구원을 얻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얻지. 확신이라는 게 뭘 줄 아세요? 영생의 확신이 하나님의 영이예요. 아시겠어요? 사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요지부동의 변함이 없는, 마귀가 꺾을 수가 없는 강한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생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지,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못 얻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완성이 되어야 어떤 마귀도 이길 수가 있죠? 그 확신의 마음은 '아이고, 난 죽겠다!' '아이고 나는 이리다가는 잘못 되겠다'고 하고서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강한 이간자의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간자가 된 줄 아세요? 뭐 기운이 세서 이간자가 된 줄 아세요? 영생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기어이 영생을 하고야 만다, 하는 그런 100%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 이간자가 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어요. 아시겠어요?

그러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다 이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구원의 자격이예요. 구원의 자격자! 자신을 이기지 않으면 결단도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움직여야죠?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제단 사정이 곧 내 사정이요, 이 제단 사정이 하나님의 사정이죠? 내 사정이 되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사정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사이클이 하나님의 사이클하고 맞죠? 하나님의 마음의 사이클과 내 마음의 사이클이 맞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죠?*

2000년 11월 10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6장 40년의 광야생활》



참성경

(2) 만나에 대한 잡족들의 불평과 메추라기 재앙

(2) 만나에 대한 잡족들의 불평과 메추라기 재앙

이스라엘 60만 대종의 출애굽 당시 중대한 잡족(이스라엘 처녀 총각과 결혼한 이방인들)이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잡족 중에는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이스라엘의 종이 된 자들도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잡족의 무리들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에 만족하

1 만나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는 하늘 양식: 민수기 11장 6절에 'appetite'의 단어를 '기력' 또는 '식욕'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정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But now we have lost our appetite: we never see anything but this manna!(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민11:6).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양식(manna 만나)를 먹고 기력이 빠지고 식욕을 잃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는 행군할 때에 힘을 소중하게 하는 양식이지만 반대로 잠자리에서 정욕이

지 아니하고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잡족들에게 동조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습니다. "아, 고기 좀 먹어 봤으면! 애굽(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리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백성들이 저희들 천막문 어귀에 끼리끼리 모여서 우는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곧 정욕을 갈구하는 뱀소리와 같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간직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義)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훼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아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양식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모세가 반문하였습니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육식만 대중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들이 한 달이나 먹을까? 양을 얼마나 잡고 소를 얼마나 잡으면 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 오면 되겠습니까?"

아훼께서는 모세에게 "아훼의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메추라기 고기를 게걸스럽게 먹는 이스라엘 백성 Gerard HOET & Abraham de BLOIS, 1728 https://ko.wikipedia.org/wiki/민수기

곧 내가 보게 되리라"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식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으들 죽히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으들 죽히오리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와 손이 짧으나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지 이쪽과 저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사이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에 두자 가람 쌓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몰려 나와 그날 밤과 낮 동안, 또 다음날 종일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지 주위에 널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열 섬은 모았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를 보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그들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간수하라는 말씀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백성들은 탐욕에 굶주린 자처럼 고기를 제대로 굶지도 아니하고 게걸스럽게 먹다가 복통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진 주위 여기저기에 널부러졌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Kibroth-hattaavah: 정욕의 무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안젤라

2 메추라기 재앙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하늘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그들의 머리에 떠올랐던 고기는 아마도 애굽에서 먹던 소나 양 고기가 아니었을까? 풍운조화를 임의로 구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침 이동 중이던 메추라기 철새 떼를 바람으로 몰아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친 자리에 떨어뜨렸습니다. 새고기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겁지겁 먹어치웠음에 분명합니다. 제대로 굶지도 않은 채 탐욕스럽게 먹다가 체하거나 식중독에 걸려 많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민수기 기자는 '고기가 이빨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백성들을 죽게 했다(민11:33)'고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죽게 된 자는 그들 자신의 탐욕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었습니다. 성경도 이제 온전하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